



2025년 2월 16일(제1234호) 연중 제6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봉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행복하여라.”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Veritas liberabit vos’라고 쓰여 있는 성신원의 비석 사진을 인쇄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공부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좋았습니다. 하느님만 있으면 뭐든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신학교에 가려고 공부하고, 신학교에서도 기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배부르고 즐겁고 돈 많은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부터가 가난하고 버림받고 비천한 이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참된 행복을 얻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 하느님 앞에서 놀라고, 순수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해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현실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태어나실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난하게 아기가 되어 오셨습니다.

또 수난을 피하지 않고 가난하게 매 맞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결국 “참된 행복”을 끝까지 가지고 계시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한 부활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청합시다. 가장 부유하신 분께서 가장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살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준혁(벨리아) 신부
은성대(공군 제19진투비행단)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예레 17,5-8
- 회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 제 2 독 시** 1코린 15,12.16-2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 복 음** 루카 6,17.20-26
- 영 성 제 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동장부부 순교지 복지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2. 이순이(李順伊) 루갈다가

친언니와 올케에게 보낸 편지

친언니와 올케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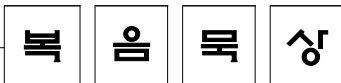
막상 편지를 쓰려고 하니 드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불쌍하신 오라버님(이경도, 가롤로)은 죽으셨는가 사셨는가?
구월 십오일에 소문으로 들은 후, 제가 붙잡혀 옥에 갇힌 뒤
소식을 전혀 들을 길이 없어 늘 답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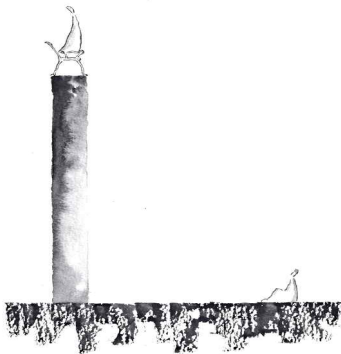
오라버님이 다시 판결을 받았으면 그 사이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만일 돌아가셨다면 그 분은 복을 누리고 계실 것이지
설마 다른 일이야 있겠습니까?

집안 형편은 어떠하고, 어머님과 올케, 언니께서는 어떻게 견디시며,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듯하니,
그간 괴로운 마음이야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계속>

『동장부부 순교지 복지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치명지신상지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래, 그대는 행복한가

오를 대로 오른.
가질 대로 갖은.

왜 우리는
행복과는 먼 것들에
눈이 가는 걸까.

그래, 그래서
그대는 행복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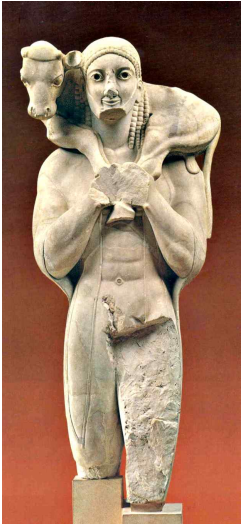
그를 보는
나는 또 어떤가.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크리오포로스



기원전 6세기경 제작
대리석
이크로폴리스 박물관
아테네, 그리스
(온전한 상태에서는
약 2m 정도로 추산됨)

크리오포로스는 그리스어 κριοφόρος에서 온 것으로, ‘양을 짊어진 자’라는 뜻이다. 그리스 시대에는 병이나 전염병으로부터 개인이나 마을/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 예식의 일환으로 양, 염소 등의 희생 동물을 어깨에 멘 헤르메스를 주제로 한 조각상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어깨에 양을 둘러멘 헤르메스가 마을 성 외곽을 한 바퀴 돌면서 신성한 의식을 치러 그 마을을 보호했다는 전설·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의 세속적 다신교적 모티브였던 이 조각상은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이후 로마 시대에서 ‘선한/좋은 목동’이라는 주제로 불리며, 그리스도교 박해 시절에는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에 비밀리에 벽화로 그려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정식 종교로 선포된 이후에는 이 선한 목동 모티브가 예수님을 상징하며,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천상으로 이끄신다는 의미로, 석관을 장식하는 부조나 조각상의 이미지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제작된 등신상의 크리오포로스는 정면을 똑바로 보며 다 부진 몸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의 양이 아니라 어린 수소를 메고 있다. 이렇게 동물의 다리가 남성의 어깨를 가로지르며 두 손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자세는 후에도 널리 확산되어, 로마 시대(4~5세기경)에도 같은 모습으로 조각되게 된다.



키티콤에 그려진
〈선한 목동의 예수님〉
로마, 프리실리 키티콤
기원후 약 3세기경 제작



〈선한 목동의 예수님〉
대리석, 적지마상 / 약 1m 높이
기원후 4세기경 제작 / 바티칸 박물관, 로마



4세기경에 제작된 바티칸에 위치한 이 조각상은 콘트라포스토라고 불리는, 허리를 약간 기울인 모습의 조각상으로,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시선과 예수님의 곱슬머리와 어린양의 곱슬거리는 털에서 보이는 양과 목동의 친밀감, 그리고 뒷면에 보면, 목 뒤로 양의 몸통이 다소 불룩 튀어나오는 듯한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김은혜(엘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6주일: 테극 최승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때·곳: 2월 16일(주일) 10: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삼위일체 성모유치원 졸업미사
 때: 2월 20일(목) 11:00
- 육군사관학교 졸업미사
 때·곳: 2월 17일(월) 17:00, 화랑대 성당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2025년 정기총회 및 제33차 세계 병자의 날
 때·곳: 2월 21일(금) 11:30,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 6층 대회의실
- 3사관학교 졸업미사
 때·곳: 2월 19일(수) 19:00, 성바실리오 성당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坎진성사의 해” -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